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로와 자기효능감

Fatigue and Self 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김은희*, 서순림**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Eun-Hee Kim(ag0115@ync.ac.kr)*, Soon-Rim Suh(srsuh@knu.ac.kr)**

요약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피로와 자기효능감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3학년 여학생 207명이었고,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및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피로정도는 3.52(SD=±.52)점, 자기효능감 정도는 3.29(SD=±.47)점으로 임상실습 시 중상정도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피로가 낮았으며, 자의에 의한 입학동기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피로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315, p<.001$). 이상의 연구결과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 간호학생의 피로 예방과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중심어 : | 피로 | 자기효능감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levels of fatigue and self-efficacy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fatigue and self-efficacy.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207 senior nursing students.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collect data during the period from 1st to 30th of June, 2013.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using SPSS 18.0 program. At the results, the average levels of fatigue and self-efficacy were 3.52/5(SD=±.52) and 3.29/5(SD=±.47) respectively that meant above moderate. Study participants having motive of admission to nursing school voluntarily and having high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were shown higher self-efficacy. There were correlated negatively between fatigue and self-efficacy($r=-.315, p<.001$). B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practice education program to reduce the level of fatigue and improve the self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 keyword : | Fatigue | Self Efficacy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의 목표는 이론교육과 임상실습교육과정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질적인 간호수행능력을 가진 전문직간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다[1]. 그러나 최근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간호 대상자의 요구도 증가는 간호사에게 임

접수일자 : 2014년 02월 03일

수정일자 : 2014년 02월 24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3월 06일

교신저자 : 서순림, e-mail : srsuh@knu.ac.kr

상실무현장에서 보다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신속한 간호업무 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2].

임상실습은 이론과 실제 상황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교육과정이며[3], 간호학생은 이 교육을 통해 다양한 간호현장을 접하게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간호수행능력을 배우게 된다[4]. 간호학생이라면 누구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학업스트레스와 더불어 실습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5]. 간호학생은 이론적인 지식을 임상실습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간호대상자와의 대인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실습현장에서의 모호한 간호학생 역할로 인한 무력감, 많은 실습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증가된다[4].

또한 간호학생은 낮은 병동환경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과 장기간의 실습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피로를 겪게 되거나[6], 제 때에 휴식을 취하기 어려워 만성피로 증후군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7]. 임상실습 동안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피로는 간호학생에게 임상실습과 간호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건강을 해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6].

임상실습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성공적인 임상실습을 기대하게 한다[8].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기대정도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9], 인간의 행동변화를 결정짓는 주요요인이다[10]. 임상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요구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천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9].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발전에 대한 내적동기가 높아지므로[9],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다면 효율적인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다[10].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간호학생의 노력과 학습환경 조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11].

간호학생의 피로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피로는 임상실습 수행의 어려움과 불안, 대인관계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12]. 이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로

이어지며, 학습과정에서 불안정과 집중력 감소를 가져오게 되고[13], 실습만족도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14].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의 선행연구를 보면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았으며[15], 전문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16][17].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으며[18],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9]. 또한 간호학생 중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11]. 지금까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 피로관련 연구는 소수였으며 간호학생의 피로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임상실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알아보는 것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임상실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정도를 조사하고,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지각한 피로,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로,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피로,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 정의

- 1) 피로: 지나친 육체적, 정신적 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지각하는 신체적 증상, 정신적 증상, 신경감각적 증상을 의미하며[20], 본 연구에서는 Schwartz 등(1993)[21]이 개발한 피로사정도구(Fatigue Assessment Inventory, FAI)를 장세진(2000)이 재구성하고[22], 이경아(2010)가 사용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23].

2) 자기효능감: 자신이 바람직한 기대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9],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1982)[24]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사정도구를 홍혜영(1995)[25]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이 지각한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피로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D광역시 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연구 참여에 동의한 207명이었다. 연구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134명이 산출되어 본 연구대상자 207명은 최소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3.1 피로

Schwartz 등(1993)이 개발한 FAI를 토대로 장세진 등(2000)이 재구성한 피로사정도구(Multidimensional Fatigue Scale, MFS)를 이경아(2010)가 7점 척도에서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21-23].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에 대해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이며,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로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장세진 등(200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22], 이경아(201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23].

본 연구에서 MFS 도구 신뢰도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2 자기효능감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사정도구를 홍혜영(1995)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에서 일반적 상황에서의 자신의 행동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일반적 자기효능감(General Self Efficacy) 17문항을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여 측정하였다[24][25].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서, 1점~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25],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D시의 2개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여학생들에게 2013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과 설문내용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2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설문내용이 연구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으며, 참여자의 비밀보장이 되고 설문에 대한 강제성이 없으며 설문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였다. 회수된 230부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13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회수율은 90%이었다.

5.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피로, 자기효능감의 정도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t-test, ANOVA로 시행하였다.
- 3) 대상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여학

생으로, 종교는 무교 118명(57.0%)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가 89명(43.0%)이었다. 건강상태는 좋은 편이 118명(57.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85명(41.1%), 좋지 않음이 4명(1.9%)이었다. 주거형태는 가족과 거주하는 경우 156명(75.4%)으로 가장 많았고, 자취 및 기숙사가 56명(23.4%)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업을 고려가 119명(5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49명(23.7%), 적성과 취미 32명(15.5%)이었으며, 사회적 봉사직에 의미를 둔 경우 7명(3.4%)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보통이 108명(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좋은 편이 83명(40.1%), 좋지 않음 16명(7.7%) 순이었다. 실습동료와의 관계는 좋은 편이 155명(74.9%), 보통 52명(25.1%)이었다. 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로는 의료인이 166명(80.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 및 보호자 22명(10.6%), 임상실습지도자 11명(5.3%) 순이었으며, 실습동료 8명(3.9%) 순이었다. 주된 실습지도자는 실습

전담교수 117명(56.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론강의교수 48명(23.2%), 수간호사 42명(20.3%) 순이었다. 주된 실습기관 수는 단일기관 실습이 94명(45.4%)으로 가장 많았으며, 2개 기관 69명(33.3%), 3개 기관 44명(21.3%) 순이었다. 임상실습 적응도는 보통이 115명(55.6%), 좋은 편이 76명(36.7%)이었으며, 좋지 않은 경우 16명(7.7%) 순이었다. 평소 수면량은 6시간 이상 120명(58.0%), 6시간 미만 87명(42.0%)이었다[표 1].

2. 대상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의 전체 평균은 $3.52 \pm .52$ 점이었다.

피로의 전체 평균은 $3.55 \pm .53$ 점이었으며, 피로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은 전반적 피로 $3.89 \pm .55$ 점이었으며, 일상 기능적 장애 피로 $3.46 \pm .61$ 점, 상황적 피로 $3.00 \pm .82$ 점이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07)

특성	구분	n(%)
종교	유	89(43.0)
	무	118(57.0)
건강상태	좋은 편임	118(57.0)
	보통	85(41.1)
	좋지 않음	4(1.9)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156(75.4)
	자취 및 기숙사	51(24.6)
입학동기	취업을 고려	119(57.5)
	적성과 취미	32(15.5)
	사회적봉사직	7(3.4)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49(23.7)
전공만족도	좋은 편임	83(40.1)
	보통	108(52.2)
	좋지 않음	16(7.7)
실습동료와의 관계	좋은 편임	155(74.9)
	보통	52(25.1)
실습 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의료인	166(80.2)
	실습동료	8(3.9)
	임상실습지도자	11(5.3)
	환자 및 보호자	22(10.6)
주된 실습지도자	이론강의 교수	48(23.2)
	실습전담교수	117(56.5)
	수간호사	42(20.3)
실습 기관 수	단일 기관	94(45.4)
	2개 기관	69(33.3)
	3개 기관	44(21.3)
	임상실습 적응도	좋은 편임
수면량	보통	115(55.6)
	좋지 않음	16(7.7)
	6시간 미만	87(42.0)
	6시간 이상	120(58.0)

표 2. 대상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정도 (N=207)

변수	M±SD	
	변수	M±SD
피로	전체	3.52±.52
	전반적 피로	3.89±.55
	일상생활기능장애	3.46±.61
	상황적 피로	3.00±.82
자기효능감		3.29±.47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차이

피로는 건강상태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2.82, p=.060$). 자기효능감은 종교($F=6.05, p=.015$), 입학동기($F=3.46, p=.017$), 전공만족도($F=7.3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3].

4. 대상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315, p<.001$), 자기효능감과 전반적 피로($r=-.238, p=.001$), 일상생활 기능장애 피로($r=-.337, p<.001$), 상황적 피로($r=-.204, p=.003$)에서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와 자기효능감

특성	구분	피로		자기효능감	
		M±SD	F/t(p)	M±SD	F/t(p)
종교	유	3.51±.54	.07(.794)	3.23±.53	6.05(.015)
	무	3.53±.51		3.33±.45	
건강상태	좋은 편임	3.46±.53	2.82(.060)	3.31±.48	.26(.770)
	보통	3.59±.50		3.26±.47	
	좋지 않음	3.91±.74		3.28±.69	
주거형태	가족과 거주	3.53±.52	.41(.522)	3.27±.50	3.46(.060)
	자취 및 기숙사	3.50±.53		3.36±.40	
입학동기	취업을 고려	3.51±.53	.65(.585)	3.25±.50	3.46(.017)
	적성과 취미	3.45±.49		3.50±.36	
	사회적 봉사직	3.50±.32		3.55±.50	
전공만족도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	3.60±.54	.39(.680)	3.22±.46	7.34(.001)
	좋은 편임	3.49±.55		3.40±.45	
	보통	3.55±.51		3.26±.47	
실습동료와의 관계	좋지 않음	3.46±.57	2.50(.115)	2.94±.47	.00(.972)
	좋은 편임	3.51±.54		3.36±.47	
	보통	3.54±.45		3.08±.46	
실습시 어려웠던 대인관계	의료인	3.50±.42	.63(.533)	3.32±.45	.17(.846)
	실습동료	3.55±.53		3.29±.49	
	입상실습지도자	3.45±.59		3.25±.49	
주된 실습지도자	환자 및 보호자	3.52±.52	.50(.605)	3.29±.48	.36(.696)
	이론강의 교수	3.55±.45		3.30±.45	
	실습전담교수	3.57±.55		3.30±.47	
실습기관 수	수간호사	3.48±.57	.24(.788)	3.24±.49	.24(.788)
	단일기관	3.54±.51		3.27±.48	
	2개기관	3.48±.54		3.30±.49	
입상실습적응도	3개기관	3.52±.54	.95(.387)	3.32±.46	1.14(.323)
	좋은 편임	3.46±.52		3.33±.45	
	보통	3.56±.52		3.29±.50	
수면량	좋지 않음	3.56±.54	2.49(.116)	3.13±.43	.69(.406)
	6시간 미만	3.50±.48		3.33±.44	
	6시간 이상	3.54±.55		3.26±.50	

표 4.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

	피로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 기능장애	상황적 피로
	r(p)	r(p)	r(p)	r(p)
자기효능감	-.315(.000)	-.238(.001)	-.337(.000)	-.204(.003)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동안 지각하는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피로는 3.52점으로 중상정도 수준이었으며, 최저 2.16점에서 최고 4.89점이었다. 이 결과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인순 등의 연구[26]에서 피로점수 1.71점, 이지원과 김영경[13]의 피로점수 2.85점보다 높았다. 임상실습에서 학생들이 중등도의 피로를

경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조사시기가 한 학기의 초기, 중기였던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한 학기 임상실습이 끝나는 시기였던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간호사의 성격유형에 따른 피로를 본 연구 [23]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성격유형에 따른 피로점수는 A형인 경우 3.40점, B형인 경우 3.77점으로 두 성격유형 모두 중상이상의 피로를 호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달라 직접 결과를 비교하기 어려우나, 간호학생이 경험하는 피로의 정도가 임상간호사의 피로 정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임상실무현장에서 간호학생은 통상적으로 1주일-2주일 간격으로 실습장소를 옮기게 되어 새로운 실습환경에 적응해야 하고 장시간 서있게 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나타낸 것으로 여겨진다.

피로 하부 영역에서 전반적인 피로도가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상생활기능장에 피로는 3.4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상생활기능장에 피로가 높은 점은 이 지원과 김영경[13]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신체적 피로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이 일치하였다.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의 신체적 피로를 야기할 수 있다[26]. 임상실습동안 피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학생의 건강과 임상실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실습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정도는 건강상태가 보통 이하인 경우 더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박인순 등의 연구[26]에서도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피로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이 일치하였다. 간호학생의 건강상태에 따라 피로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때, 간호학생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즉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의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호학생 시기부터 인지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종교, 전공만족도에 따라 피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박인순 등의 연구[26]에서 피로가 종교,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받은 결과와 달랐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 중 종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아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26], 추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임상실습은 한 학기를 단위로 지속적으로 수행되므로 간호학생의 피로를 유발하는 요인을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3.29점으로 중상정도이었으며, 최저 1.94점에서 최고 4.5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김영희[27]의 연구결과인 3.70점, 김남희와 김경원[28]의 연구결과인 3.50점보다 약간 낮은 점수이었다. 이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의 여건이 서로 다르고, 2학년과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비해 본 연구는 3학년 학생만을 대상

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

일반적 특성 중 종교, 입학동기, 전공만족도가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종교가 없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화이의 연구[30]에서 종교활동이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어 종교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다른 맥락을 보였다. 이 결과는 추후 연구를 통해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는 김남희와 김경원[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4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정진[29]의 연구에서도 입학동기, 전공만족도에서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입학동기에서 취업률 고려보다 적성에 맞는 경우 자기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상자의 자율적 의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바람직한 결과로 여겨진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숙희의 연구[31]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성취동기가 증가되고 과제 수행 시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되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맥락이 일치한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이는 실습만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시에 지각하는 피로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났다. 피로의 하부영역인 전반적 피로, 일상생활기능장에, 상황적 피로 영역 모두에서 자기효능감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간호학생의 피로와 효능감을 본 연구가 없어 실제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루프스환자를 대상으로 한 송경애의 연구[32]와 혈액투석환자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조사한 서남숙 등의 연구[33]에서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맥락이 일치하였다. 피로 조절이 잘 되고, 자기효능감이 증진될 때 환자들의 질병상황이 호전된 바와 같이 임상실습 동안 간호

학생의 피로가 줄어들고 자기효능감이 향상될 때 임상실습교육이 효율적이 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교육 계획 시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교육을 통해 실제 간호대상자가 있는 상황에 적응하도록 준비하게 되고, 간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수행으로 연결하는 인지체계를 가져야 한다[27].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은 간호학생의 행동과정을 조직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10].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은 훌륭한 임상간호사를 배출하는 선행과정이 되므로, 간호교육 지도자들에게 의한 학교와 임상실습 현장에서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전략과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간호학생 중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결과로 남학생에게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간호학실습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향후 남학생들에 대한 피로와 자기효능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피로와 자기효능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로서, 임상실습교육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D시에 소재하는 2개 대학 3학년 여학생 20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201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의 피로 정도는 평균 3.52점, 자기효능감 정도 평균 3.29점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피로가 낮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은 입학동기가 주도적이고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피로와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 결과에서는 부적인 상관관계로 피로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315, p<.001$). 이상의 연구결과

로 임상실습 동안 간호학생의 피로와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중상정도이며, 피로가 낮을수록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생의 피로 예방과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임상실습의 질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 간호학생의 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학생의 피로 감소와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M. H. Waldner and J. K. Olson, "Taking the patient to the classroom: Applying theoretical frameworks to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Internatio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4, No.1, pp.1-14, 2007.
- [2] 한국간호협회, "간호교육 4년 일원화, 꿈을 이루다", 포커스, 제2권, pp.10-13, 2012.
- [3] P. Benner, M. Sutphen., V. Leonard, and L. Day, *Educating Nurse*, Carnegie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2010.
- [4] 양남영, 문순영,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제17권, 제2호, pp.216-225, 2011.
- [5] 송영숙, "간호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와 삶의 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8권, 제1호, pp.71-80, 2012.
- [6] 원종순, 김금순, 김경희, 김원옥, 유재희, 조현숙, 정인숙,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경감을 위한 발마사지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7권, 제2호, pp.192-207, 2000.
- [7] 박미숙, *성인의 만성피로 모형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 [8] 김명숙, "간호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전공만족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조

- 절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7권, 제2호, pp.159-167, 2011.
- [9] A. Bandur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19-215, 1977.
- [10] 김경혜, 김경덕,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3권, 제2호, pp.229-236, 2007.
- [11] 심미정, 오효숙, “간호학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습동기 및 자기주도적 학습태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2012.
- [12] 이윤정, 권준성, 유수정, “족욕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피로경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9권, 제1호, pp.94-102, 2003.
- [13] 이지원, 김영경,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 피로 및 피로조절행위간의 관계”, 여성건강, 제6권, 제1호, pp.93-108, 2005.
- [14] 박미영, “간호학사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분노경험”,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7권, 제1호, pp.7-21, 2001.
- [15] 신은주, “일 대학 간호학사의 자기효능감, 실습만족도 및 기본간호수술과의 관계”, 기본간호교육학회지, 제15권, 제3호, pp.30-386, 2008.
- [16] 황성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2권, 제2호, pp.205-213, 2006.
- [17] 하나선, 최정, “간호학사의 전문직사회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종단적 연구”, 간호학의 지평, 제8권, 제2호, pp.73-85, 2011.
- [18] 김정숙, 서리나, 탁정미, “여대생의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이 진료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제9권, 제4호, pp.5-14, 2006.
- [19]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취업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제11권, 제4호, pp.405-417, 2002.
- [20] Dusan Encyber, *두산백과사전*, 두산동아, 2001.
- [21] J. E. Schwartz, L. Jandorf, and L. B. Krupp,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37, No.7, pp.753-762, 1993.
- [22] 장세진, *피로,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표준화 방안*, 대한예방의학회, 계축문화사, 2000.
- [23] 이경아, *임상간호사의 A/B형 성격유형에 따른 피로와 건강상태*,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24] M. Sherer, J. Maddux, B. Mercandantem, S. Prentice-Dunnm, B. Jacobs, and R. Rogers,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51, pp.663-671, 1982.
- [25] 홍혜영,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26] 박인순, 김창숙, 김란, 김영재, 박명희, “일 간호학사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11권, 제2호, pp.151-160, 2005.
- [27] 김영희, “일 대학 간호학사의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성 및 임상실습 만족도와의 관계”, 기본간호교육학회지, 제16권, 제3호, pp.307-315, 2009.
- [28] 김남희, 김경원,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전문직 자아개념 및 임상실습도”, 보건의료산업학회지, 제5권, 제4호, pp.41-51, 2011.
- [29] 한정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와 임상실습관련 자기효능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0] 강화이, *청소년의 종교활동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1] 이숙희,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사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5권, 제4호, pp.539-547, 2008.
- [32] 송경애, 강성실, 김경희, “만성관절염 환자의 통증, 피로, 자아존중감, 건강상태지각과 자기효능

감에 대한 관절염 체조의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8권, 제2호, pp.210-219, 2001.

[33] 서남숙, 강승자, 김재희, 김세자, “혈액투석환자의 피로와 수면장애,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우울관계”, 임상간호연구, 제19권, 제2호, pp.285-297, 2013.

저 자 소 개

김 은 희(Eun-Hee Kim)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98년 2월 : 경북대학교대학원(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경북대학교대학원(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영남이공대학교 간호대학조교수
<관심분야> : 암 간호, 임상연구간호, 교육콘텐츠개발

서 순 림(Soon-Rim Suh)

정회원



- 197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사)
- 1978년 2월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1984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관심분야> : 종양 간호, 노인간호, 보건 및 교육콘텐츠 개발